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제목 : 바울의 구명운동 성경: 빌레몬서 7-22절

Tag: 바울,적극적행동,오네시모,빌레몬,신약성경

7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8 이렇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네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9 도리어 사랑으로써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10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

11 그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하므로

12 네게 그를 돌려 보내노니 그는 내 심복이라

13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네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14 다만 네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 것도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 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15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16 이 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 받는 형제로 들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네게라

17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18 그가 만일 네게 불의를 하였거나 네게 빛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19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이 외에 네 자신이 내게 빛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20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21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하므로 네게 썼노니 내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22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몬1:7-22)

적극적인 태도가 삶에 많은 유익을 준다.

그러나 모든 적극적인 태도가 유익하지는 않다. 지나치게 적극적인 것은 오히려 건강을 해치거나, 일을 무산시키기도 한다. 지나치게 적극적이라는 것은 상당부분 욕심이 깃들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악한 일에 적극적인 것은 아주 더 나쁘다. 그것은 저주를 쌓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역시 선한 일에 적극적인 것이 가장 유익하다.

동기가 사랑이라면 더 이상 바랄 것은 없을 것이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노예였다. 그는 주인으로부터 도망쳤다가 바울을 만나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아마 감옥에서 만난 것을 보아하니 그가 범죄 이력이 있는 듯하다.

그러나 그는 회개하였고, 독실한 기독교인이 되었으며, 이제는 바울을 극진히 섬기는 자가 되었다.

뜻밖에도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종이였다는 것을 알게 된 바울은 이제 오네시모에게 편지를 써서 빌레몬에게 돌려 보냈다. 편지의 내용은 오네시모에게 자유를 주어 자신을 섬기게 하라는 것이었다.

우리는 본문 말씀에서 바울이 오네시모 구명운동을 하면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행동하였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7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1. 칭찬

8 이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네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2. 가장 쉬운 일이지만, 가장 선한 일은 아닐 수 있다.

9 도리어 사랑으로써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3. 사랑의 법으로 간구함. 공통의 목적을 상기시킴.

10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

4. 아들 오네시모;아들과 같이 여기는 자를 위한 청원

11 그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하므로

12 네게 그를 돌려 보내노니 그는 내 심복이라

13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네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5. 네 대신으로 그가 봉사하게 하라!

14 다만 네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 것도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 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6. 주인의 승낙이 필요함. 선한일은 억지로 하는 것보다 자의로 하는 것이 더 고급스럽고 효과적임. 자의적 행동을 유발하는 것이 중요함.

15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7. 하나님의 섭리로 악한 일이 선하게 마무리 되도록 함.

-충분히 주인으로서 기강을 세우고, 재산을 확보하고, 손해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영원히 함께 하는 자가 됨.

-그러므로 주를 믿는 것의 효과가 영원함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판단과 행동에 도움이 됨.

16 이 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 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네게라

17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8. 바울을 대하듯 오네시모를 대하라

18 그가 만일 네게 불의를 하였거나 네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9. 바울이 모든 비용이나 손해를 계산해 주리라.

19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이 외에 네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10. 친필을 사용함; 분명한 자신의 의견이요, 법적인 효과가 있다. (오네시모의 도망은 분명히 당시 사회적으로는 법적인 처벌이 엄격하였다.)

-빌레몬이 진 영적인 빛을 기억나게 함으로 그가 오네시모를 용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고 있다.

-행여라도 빌레몬이 잘못 판단해서 억지나 자신의 의로움에 빠져서 오네시모에 대해 냉정한 생각을 하게 될 것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이다.

-또 오네시모가 행여라도 주인이 자신에게 완강하게 반응함으로 인해서 믿음에서 멀어지게 될 것을 염려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결국 바울의 이처럼 오네시모를 향한 열정은 영혼구원의 완성을 위한 열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 영혼을 위한 최선의 배려가 결국 그를 구원에 이르게 돕는다.

-마음 씹씹이는 그 영혼을 깨어나게 한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애쓰고 있다는 생각이 그 영혼을 정화 시키고 어둠의 터널에서 벗어나게 한다.

20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21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하므로 네게 썼노니 네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22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몬1:7-22)

<찬양예배>

제목 : 기독교와 인문학 성경: 전도서 12장 9-14절

Tag: 인문학, 신앙강좌

9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10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11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12 내 아들이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13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14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 간에 심판하시리라 (전12:9-14)

인문학의 기초 주제들에 대한 가벼운 담론.

인문학에 대한 우려와 기대가 회자되고 있다.

인문학은 풍요로운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한다.

인문학은 적은 노력으로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제대로 된 지식이 아니라면 역효과도 만만치 않다.

교회로서는 옥석을 분별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 우선적인 일이라 생각한다.

형이상학과 형이하학

진보와 보수

좌파와 우파

사회-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인본주의와 신분주의

유물론과 관념론(존재론적 유신론)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